

경제



GS칼텍스는 12일 여수공단 내 여수공장에서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박준영 전남지사,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중질유분해시설 기공식을 했다. /연남뉴스

남영건설 법정관리 개시

8월8일 첫 관계인 집회

광주지법 제1파산부(윤성원 부장 판사)는 12일 남영건설에 대해 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창남 대표이사 등 2명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 시일이 본격 가동되면서 등유와 경유를 조사하고, 오는 8월8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남영건설은 토목·건축·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공공·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CNS(주), 남영레저개발, 신태양발전(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 GS칼텍스 '글로벌 톱' 꿈꾼다

제4 고도화설비 기공... 친환경 정유공장 도약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정유공장으로 도약한다. 환경오염이 큰 중질유(벵커C유)를 휘발유·경유 등 고부가가치 경질유로 전환하는 고도화설비를 공격적으로 증설, '글로벌 톱'을 꿈꾸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04년부터 고도화설비에 모두 5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제3고도화시설 준공 이어 제4시설 착공> GS칼텍스는 12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수공장에서 세번째 고도화설비 준공식과 네번째 고도화설비 기공식을 동시에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영환 국회 지식

경제위원장,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중질유를 친환경 경질유로 전환하는 중질유 분해시설은 녹색성장기술"이라며 "생산제품의 전량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90% 이상이 경질유로 구성되는 정유공장의 이상적인 모델인 '퍼펙트 콤플렉스(Perfect Complex)'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도 "우리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중질유 분해시설과 같은 고도화설비를 계속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유형과 같은 유해 성분이 많은 중질유를 친환경적인 경질유로 전환하는 것은 녹색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고도화설비는 원유를 정제할 때 불가피하게 대량 생산되는 저급의 값싼 벵커C유를 원료로 휘발유·경유 등 고부가가치 경질유를 생산하는 설비다. 저가의 원료를 고가의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지상유전(地上油田)'으로 일컬어진다. 이날 기공된 제4중질유분해시설은 하루 정제능력이 5만3000배럴 규모로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 설비에서는 연산 25만t 규모의 프로필렌이 추가 생산돼 프로필렌 생산능력이 총 45만t으로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사업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GS칼텍스는 1995년 완공한 제1중질유분해시설에서 하루 9만4000배

럴, 2007년 완공한 제2중질유분해시설에서 6만1000배럴, 이날 준공식을 가진 제3중질유분해시설에서 6만배럴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완전 가동에 들어간 제3중질유분해시설은 아시아 최초, 세계 7번째로 초중질유를 원료로 등유·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뽑아내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GS칼텍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의 투자가 투입됐다. <2013년 하루 26만8000배럴 국내 최대>=오는 2013년 네번째 고도화설비가 완공되면 GS칼텍스의 하루 고도화 처리능력은 26만8000배럴로 확대된다. 고도화설비 비율 역시 현 28.3%에서 35.3%로 높아져 국내 최고 수준이 된다. 현재 S-Oil의 고도화 비율은 25.5%, SK에너지는 15.4%다. 현대오일

뱅크는 올해 하반기 두번째 고도화설비가 가동되면 30.8%가 된다. GS칼텍스는 2013년 수출액 또한 270억 달러로, 지난해 170억 달러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제3중질유분해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등유와 경유의 수출이 크게 성장했다. 올해 1분기 GS칼텍스의 등유와 등유(항공유포함) 수출물량은 980만배럴, 670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0%, 34% 증가했다. GS칼텍스는 이같은 투자 배경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심화돼 휘발유·등유·경유 등 경질유 제품 수요는 증대되고, 벵커C유 등 중질유 제품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 과감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정재부본=박성태기자 mihang@

타임오프 10개월 양대노총 전임자 수... 민노총이 한노총보다 많이 줄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으로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전임자 감소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630곳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의 비율은 40.3%(254곳)로 집계됐다.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비율은 43.3%(273곳)였고, 증가한 비율은 16.3%(103곳)였다. 반면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1253곳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 비율은 29.4%(368곳)였다.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한 사업장 비율은 각각 45.6%(571곳), 25.1%(314곳)에 달했다. /연남뉴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333곳)으로 타임오프를 도입한 302곳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 비율은 19.5%(59곳)로 파악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전임자 수는 28%가 감소했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은 49.5%가 줄었다. 이에 비해 300명 미만 사업장과 300~999명 사업장의 경우 각각 6.4%와 18.5%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부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중소기업 노조의 합리적 노동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고 대규모 노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만큼 대규모 강성노조가 노조법 개정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광주 광공업 생산 증가율 전국 최고

1분기 37% 상승

올해 1분기 광주의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의 취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반도체 등의 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분기보다 3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소매점판매는 지난 분기보다 3.6% 확대됐고, 수출은 지난 분기

25.8%에서 12.8%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고용(-1.5%)과 건축착공면적(-0.5%)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분기 30.8%의 증가세였으나 이번 분기 들어 크게 감소한 수치다. 1분기 전국의 물가는 지난 분기보다 4.5% 상승한 가운데 광주는 4.4%로 서울(4.0%), 인천·경기(4.3%)에 이어 낮은 편에 속했다. 생활물가도 전국 상승률 4.9%보다 낮은 4.5%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 분기 0.3%에서 -1.2%로 돌아섰다. 전남의 1분기 수출액은 지난 분기보다 43.7%가 상승하며 경남(60.1%), 강원(44.0%)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취업자는 지난 분기 -3.0%에 이어 1분기에도 -3.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인구 유출도 많은 광주는 1분기 1623명이 증가한 반면, 전남은 서울(-1만8782명), 부산(-5118명)에 이어 4833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 "광주 광산업 3조 시대 열겠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는 12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233개 회원사 대표와 광산업육성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허영호 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경인사무소 설립을 통해 지원

송중호 중진공이사장 목표 방문

송중호(54)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2일 목표를 방문했다. 송 이사장은 이날 무안 일로농공단지 소재한 도자기 생산업체인 (주)에릭스를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또 포포대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코스피지수 2122.65 (-43.98), 코스닥지수 504.46 (-0.72), 금리 (국고채 3년) 3.67% (-0.05), 원·달러 환율 1085.10원 (+10.20)

다양한 부동산 광고: 금산공인중개사, 대인동삼일부동산, 신도시공인중개사, 신진공인중개사, 복돼지 공인중개사무소, 무인텔 부지 매매, 복구 매곡동 대주피오레 부근, 학원 임대 매매전문, 금 상가건물 매매